

## News

### 예금이자 오르자 은행 곳간 불었다... 정기예금 이틀새 1.6조 증가

중앙일보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예금금리 상승, 시중 자금이 다시 은행으로 몰려... 주요 4대은행 정기예금 잔액 금리인상 후 이틀만에 1조 6,000억원 증가  
은행권, 주식 등 투자상품의 일부 조정이 예상되면서 일시적으로 은행에 돈 옮기는 투자자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은행의 수신고 증가 전망

### 은행 부실채권비율 0.54%...4분기 연속 '역대 최저'

연합뉴스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 0.54%로 1분기 대비 -0.08%p 감소... 지난해 3분기부터 4분기째 최저 기록 중  
주요 시중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평균 0.3% 수준... 지방은행 0.49%, 인터넷전문은행 0.27%, 특수은행 0.93%

### 금융지주계열 저축銀 대형사보다 인기

매일일보

올해 1분기 기준 4대 금융지주계열 저축은행 수신액은 총 6조 2,782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 4대 대형 저축은행 수신액 증가율은 32%에 그쳐...  
금융소비자들이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모기업이 있어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제한없이 예금하기 때문... 예금금리 매력도 더 큰 요인도 작용

### 금융사 CEO 징계 제동걸린 금감원...하나은행 제재심이 '풍향계'

뉴스1

9월초 재개될 하나은행 제재심에 주목 중... 금감원 패소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로 작용 가능성  
금감원,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에 대한 같은 논리로 하나은행 제재 어려워져... 지배구조법으로 내부통제 부실을 사유로한 법적 근거 동력 상실

### 전방위 대출 규제에 증가한 보험사 약관대출...“수요 더 늘 듯”

뉴스웨이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로 보험사약관대출 규모 증가 추세... 카드론보다 이자 저렴 및 절차도 어렵지 않아... 만기 정해져있지 않아 급전 필요한 차주들의 자금줄 역할  
올해 상반기 기준 각 보험사 보험약관대출은 전년대비 10% 가량 증가...한화손해보험 전년대비 10.3%로 가장 크게 늘어... 향후약관대출 이용하려는 차주들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생보사, 판매채널 방카슈랑스 편중...비대면 역할 미미

보험매일

지난해 생명보험 최회보험료 10조 8,000억원 가운데 방카슈랑스 8조원으로 73.9% 차지... 코로나19로 영업활동에 타격받아 방카슈랑스 채널 강화  
방카슈랑스 편중에 따라 수익 민감도 증가 우려 제기... 생보사의 자체 대응 여력 축소 요인 가능성... 비대면채널은 생명보험사 수익성에 크게 기여하기 힘들 것 분석

### 메리츠화재, 900억 자사주 매입 발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계약체결 기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계약기간 종료일 22년 8월 30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9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약 체결 결정했다고 공시

### 미래에셋증권, 주주환원 정책 발표한 이유는

뉴시스

미래에셋증권, 26일 3년간 주주환원 성향을 순이익의 30% 이상 유지하겠다는 정책 계획 제시... 연말 보다 이르게 공시한 내막에 국민연금 압박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국민연금, 내달 산하 수탁위를 열어 미래에셋증권의 주주환원 정책 계획 검토 방침... 올해 초까지 배당계획부재로 보고 단계 상향하려 했으나 미래에셋이 해당 정책 제시해 일단락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